

# 페루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11.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6

## I.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sup>2</sup>	G D P	1,772억 달러 (2011년)
인구	30.01 백만 명 (2011년)	1 인 당 GDP	5,904 달러 (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uevo Sol(NS)
대외정책	실리주의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2.75 (2011년)

-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안데스산맥이 국토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약 3,000만 명의 인구, 남미에서 3번째로 광활한 영토(한반도의 약 6배), 천연가스, 금, 은, 동, 아연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최근 수년 간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가신인도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9.8	0.9	8.8	6.9	6.1
재정수지 / GDP	2.2	-2.1	-0.3	2.5	1.8
소비자물가상승률	5.8	2.9	1.5	3.4	3.7

자료: IMF.

#### □ 고도 성장세, 다소 둔화 전망

- 페루 경제는 국제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금 및 동의 수출액 증가, 까미세야 천연가스전 개발, 에너지 및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2007년 8.9%, 2008년 9.8%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0.9%의 저성장에 그침.
-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1년에는 경기 과열을 우려한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로 경제성장률이 6.9%로 다소 둔화되었음.
- 2012년에는 미국경제 회복 지연, 중국의 성장 둔화, 유로존 위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광업 분야 분쟁에 따른 투자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둔화된 6.1% 성장이 예상되나,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 2011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세

-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8%에 이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5.8%에 이르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09년에는 2.9%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경기 과열을 우려한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강화와 누에보솔화의 강세 지속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를 기록함.
- 그러나 2011년에는 민간소비와 공공지출 증가 등 내수 강세, 식품 및 석유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억제 목표치인 3%를 초과하는 3.4%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3.7% 수준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흑자기조로 전환

- 2003년 5월 재정책임투명성법(Fis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Law) 제정, 부가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 등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 조치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로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보이던 재정수지가 2006년 이후 흑자로 전환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로 인해 2009년에는 재정수지가 다시 GDP 대비 -2.1%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경제성장세 회복과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적자 폭이 GDP 대비 -0.3%로 축소되었음.
-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단, 광산세 신설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 공공부채 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경감 등으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2.5%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회보장 지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흑자 폭이 GDP 대비 1.8%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광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 차지

- 광업은 최근 수년 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페루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2010년 기준 광업 부문은 페루 GDP의 11%,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투입산출표 상으로 광업이 현재 국가투입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광산업 부문에 유입된 투자액은 72억 달러에 달하였음. 또한 광업 부문의 직접고용 인력은 6만 7천여 명, 간접고용 인력은 33만 5천여 명에 달하며 관련업종의 고용인구는 총 150만여 명으로 페루 총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 광업이 페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이나, 산업용 광물과 귀금속을 함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 낮은 인프라 수준

-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페루는 총 144개국 중 61위를 차지하였는데,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에 대한 평가 순위는 144개국 중 111위를 기록하는 등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로(100위), 철도(97위), 항구(111위) 등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음.
- 전화, 인터넷 등 통신인프라의 보급률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특히 2011년 기준 페루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11.1%를 기록하여 GDP 규모가 페루보다 작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임.
- 2011년 페루 전기보급률은 82.7%로 중남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페루보다 전기보급률이 낮은 중남미 국가는 아이티, 볼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에 불과함.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페루는 2011년 기준 은(1위), 구리(2위), 동(2위), 주석(3위), 아연(4위), 몰리브덴(4위), 금(9위) 등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남미의 자원 부국임. 또한, 광물자원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은(1위), 구리(2위), 아연(3위), 동(3위), 주석(3위), 몰리브덴(4위), 금(7위) 등 생산량도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페루는 또한 남미 제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서 까미세아 가스전에서 국내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양의 천연가스가 생산됨에 따라 주에너지원을 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가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탐사 지역이 전국토의 9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페루 광업시장의 향후 전망 또한 밝음. 페루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44개의 새로운 광업 프로젝트에 총 424억 5,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 농림수산업 발전 잠재력 풍부

- 곡물 재배에 적합한 다양한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19위의 넓은 국토 가운데 1% 정도만이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큼. 또한 세계 8위의 식물다양성과 세계 10위의 삼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임산자원도 풍부함.
- 태평양 연안의 3,08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더불어 두 난류의 접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함. 페루는 어분(fish meal) 및 어유(fish oil) 생산, 수출 1위의 자리를 고수하며 전세계 소비량의 1/3 가량을 공급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급진적 정책변화 우려 불식

- 우말라 정부 출범과 함께 급진적 좌파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고 물라식 합리적 좌파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기득권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적 화합을 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말라 정부는 낙후된 산악 및 밀림 지역의 빈곤 퇴치 및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광산업 초과이윤세를 신설하고 특히 교육, 보건, 인프라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우말라 정부는 투자장벽 제거, 민영화, 무역 자유화 등 친시장적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1년 대 페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광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76.6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을 개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함. 동 법에 의하면 광물 부문 투자기업은 배당금, 로열티 등의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계획 시 투자기업은 페루 정부와 경영안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광산업 초과이윤세 신설로 총세율이 38.5%에서 42.4%로 상향되었지만 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 관련 사회분쟁 해결과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투자환경 개선의지가 향후 지속적 투자 유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FTA 협상 활발

- 천연자원 및 저임금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한 페루는 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수출 및 투자 확대, 생산성 증대 및 산업 고도화 등을 꾀하고 있음.
- 2009년 2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미국은 페루 수출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 밖에도 캐나다, 중국, 우리나라,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 호주, 브라질,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연합체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5,285	-691	-3,782	-3,341	-6,078
경 상 수 지 / G D P	-4.2	-0.5	-2.5	-1.9	-3.0
상 품 수 지	3,157	5,879	6,747	9,005	6,295
수 출	31,529	26,885	35,565	46,118	47,563
수 입	28,373	21,006	28,818	37,112	41,268
외 환 보 유 액	30,272	32,013	42,648	47,206	59,816
총 외 채 잔 액	34,740	35,641	40,644	43,515	50,693
총 외 채 잔 액 / G D P	27.3	28.1	26.5	24.6	25.3
D S R	14.2	13.1	19.0	8.2	8.1

자료: IMF, EIU, IIF.

####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4~07년에는 광물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였으나, 2008년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다국적 광업회사들의 과실 송금 및 외채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5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됨.
- 2009년에는 상품수지가 59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0.5%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및 외국기업들의 송금 증가 등으로 다시 GDP 대비 -2.5%로 확대되었음.
- 2011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1.9%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2012년에는 대외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10개월분 수준 유지

- 수출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페루의 2011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7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의 269억 달러보다 75%가 증가한 수치임.
- 외환보유액의 꾸준한 증가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2009년 이후 10개월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세가 지속되면서 월평균수입액 대비 12개월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총수출은 총외채잔액을 상회하는 수준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4년에 206%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외채 조기상환 등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관리정책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06~11년 평균 97%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2012년에는 총수출증가율이 4% 수준으로 둔화되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도 2011년의 84% 수준에서 9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외채상환부담은 감소 추세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7년에 26.5%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파리클럽 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고,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2007년 2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2011년 7월 28일 우말라 정부 출범

- 2011년 6월 5일 실시된 대선에서 좌파인 페루 승리당(Gana Peru)의 오안따 우말라(Ollanta Humala) 후보가 51.5%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7월 28일 취임함. 우말라 대통령은 2006년 대선 도전 실패를 교훈 삼아 친시장정책을 겸비한 실용노선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여 우파 푸에르사당(Fuerza 2001)의 케이크 후지모리 후보를 근소한 표차(3%)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이는 1975년 후안 벨라스코 알바레도 군사정부 이후 36년 만의 좌파 정권임.
- 우말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인 '불사 파밀리아' 등을 롤모델로 삼고 소득분배 정책을 실현해 극심한 빈부격차와 농민층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또한 좌파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친시장주의 성향의 관료들을 중용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
- 그러나 우말라 대통령이 전임정권의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견지함에 따라, 극심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집권당의 급진좌파 세력과의 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또한 우말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후 10개월간 평균 56%에 달했으나, 사회갈등과 빈부격차, 치안 불안 등으로 점차 하락하여 2012년 10월 여론조사에서는 40%를 기록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계층·지역·인종 간 빈부격차 상존

- 2010년 UNDP의 조사에 의하면 페루 국민의 31.3%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절대 빈곤층은 9.8%에 이룸. 전체인구의 상위 10%가 연간 총수입의 33%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총수입의 13%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간 경제활동의 근간인 중산층이 쇠퇴하여 전체인구의 10% 선에 불과함. 또한 지니계수가 0.48에 달하는 등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인디오의 경우 안데스 고원 지대와 동부 밀림 지대의 농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음. 반면에 메스티조와 백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해안 저지대의 도시에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지역, 인종 간 빈부격차 문제가 존재함. 도시인구 비중은 70% 정도이며, 약 9백만 명의 인구가 수도 리마에 거주하고 있음.

#### □ 광산업 부분의 사회분쟁 지속

- 2011년 말부터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Cajamarca) 지역의 콩가(Conga) 광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 2012년 7월에는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도 크고 작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우말라 정부는 2012년 7월 내각 교체로 단행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지지층인 지방 주민과 하층민 및 정치권 내 좌파 진영의 비난에 직면해 있음.
  - 콩가 프로젝트는 미국 뉴몬트(Newmont) 사가 투자하는 48억 달러 규모의 페루 역사상 최대 광산개발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들이 프로젝트가 환경과 물공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격렬히 반대함에 따라 2011년 11월 광산 개발 작업이 중단되었음.
- 2012년 5월 28일에는 페루 남부 쿠스코(Cusco) 지역에서 스위스 엑스트라타(Xstrata) 사가 추진하는 틴타야(Tintaya)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시위대 2명이 사망하고 양측 4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페루 정부는 동 지역에 대해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함.

#### □ 마약 밀매 등으로 인한 치안 불안 심화

- 흔히 브라에(VRAE, Valle del Rio Apurimacy Ene)라고 불리는 페루 아뿌리막(Apurimac)강과 에네(Ene)강 사이의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된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잔당이 공권력과 민간에 대한 무장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은 페루 최대의 반정부 사회주의 단체로 1980년대 이후 테러와 무력투쟁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중앙권력의 통제가 약한 지방정부의 일부 지도자들이 밀수, 불법 광업 행위 및 코카인 재배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역주민을 선동해 파업, 도로 점거 등으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

- 우말라 정부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남미국가연합(Unasr), 안데스 공동체(CAN) 등의 지역협력기구를 통해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브라질과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증대,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로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 국경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칠레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페루는 과거 비동맹 지향 외교에서 탈피하여 미국, 캐나다, EU 등 대서방 외교를 중시하고 있음. 페루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국경지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8년 10월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체결 시 4대 보장국 중 하나로 페루-에콰도르 국경개발 협력사업에 약 4천만 달러를 지원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 양호

- 페루는 1986년 9월 국제 상업은행단과의 외채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리금상환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기관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한동안 신규차입이 동결되었음.
- 그러나 1990년 출범한 후지모리 정부가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외채상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996년 이후 신규 차입이 재개되는 등 국제신인도가 개선됨.
- 201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8.1억 달러, 중장기 9.9억 달러로 총 18.0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800만 달러로 전체의 1%를 기록하고 있어,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글로벌 본드 발행 등을 통한 채무스왑 및 조기상환 실시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으로 2002년 2월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또한, 국제금리 하락을 활용하여 12억 달러의 브래디 본드를 신규 글로벌 본드와 스왑하여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킴.
- 한편 2005년 6월에도 페루는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80억 달러 중 2009년 12월 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 20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였음. 페루는 이를 위해 7.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현지화로 4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는 바, 이는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외채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외채는 현지화 표시 내국채로 전환됨에 따라 환리스크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5월에는 우리스 까란사 재무장관이 파리클럽 외채 57.5억 달러 중 2007~15년 중 기일이 도래하는 외채 25억 달러의 조기상환 계획을 발표하였고, 파리클럽 회원국이 페루의 조기상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10월 1일자로 조기상환이 실시되었음.

- 2009년 7월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16년 만기의 10억 달러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 중 8.5억 달러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대한 파리클럽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 □ 국가신용등급은 2008년 이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

- OECD는 2008년 6월 국가위험도평가회의에서 최근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및 무역상대국 다변화 성공,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페루의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함.
- S&P는 2008년 7월 재정수지 개선, 대외부문 변동성 감소, 물가 안정 등 전반적 거시경제환경이 건설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조정했으며, 2011년 8월에는 지난 7월 취임한 우말라 대통령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BBB-에서 BBB로 다시 상향조정함.
- Fitch는 2008년 4월 외채관리능력 향상 및 외환보유액 증가,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광업 로열티 수입 증대로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고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BBB-에서 BBB로 다시 상향조정함.
- Moody's는 2009년 12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정부채무에 대한 신용위험 감소를 반영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2년 8월에는 건조한 경제성장세 지속과 건전한 재무 상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Baa3에서 Baa2로 다시 상향조정함.



- 2011년 기준 페루는 우리나라의 49위 수출대상국, 36위 수입대상국임.

- 교역구조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산업 간 무역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페루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TV,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광, 아연광 등 광물과 커피, 오징어 등 농수산물임.

□ 해외직접투자 현황('12년 6월 말): 51건, 8.6억 달러(투자실행 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페루 직접투자는 2009년 4천만 달러, 2010년 4천 8백만 달러, 2011년 5천 2백만 달러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 대 페루 주요 투자업종('11): 광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표 4> 한·페루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페루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641	944	1,368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수 입	919	1,039	1,950	동광, 기타금속광물, 천연가스
합 계	1,560	1,983	3,318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페루 경제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민간소비와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6% 이상의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되고 총수출이 총외채잔액을 상회하는 등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2011년 7월 출범한 우말라 정부는 시장개방, 경제자유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실용적, 친시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말 이후 광업 분야의 사회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치안 불안으로 사회 안정성이 낮고 인프라가 열악한 점 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Fitch('11.11)와 Moody's('12.8)가 페루의 국가신용도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국제시장평가도 개선되는 추세임.

조사역 송호석 (☎02-3779-5709)  
E-mail: hssong@koreaexim.go.kr